

고린도전서8:7-13 자유에 대하여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의 삶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지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1.우리주변에 연약한 형제들이 있다(8)

8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9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7절) '쉽게 상처받으며'(12절), '쉽게 실족합니다(13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혹 시라도 약한 성도들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보는 성숙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한 자가 하는 것을 다 내버려 두어 제멋대로 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철저하게 목회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연약한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11)

11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큰 죄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이기신 영혼을 범죄에 빠져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뱃돌을 매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무서운 죄가 됨을 교훈하셨습니다.

롬14: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히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3.사랑의 실현이다(13)

13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형제를 실족케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으라든지 먹지 말라고 단언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 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도의 성숙한 문제 해결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